즉시 배포용: 2/25/2015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칼리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을 뿌리뽑기 위해 "ENOUGH IS ENOUGH" 캠페인을 시작하다

뉴욕주 총경, 캠퍼스 내 성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핫라인을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학내 성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주지사의 입법안 통과를 밀어부치기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뉴욕주 캠페인인 "Enough is Enough"를 발표하였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학내 캠퍼스에 "Enough is Enough"를 도입하기 위한 주 단위 순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순시에서 학생회 관계자, 교수진 및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강간 및 성폭행 생존자 지지자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업체와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이 캠페인에는 www.ny.gov/SafeCampusNY 웹사이트와 학생, 지지자 및 학내 캠퍼스에서의 성폭력에 대처하는 주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등장하는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내 캠퍼스에서의 성폭행과 강간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 법은 뉴욕주 모든 칼리지 학생들이 지난 해 SUNY가 채택한 동일한 정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의 문화를 뿌리 뽑으려 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칼리지나 대학교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행동의 요구로, 뉴욕은 학내 캠퍼스에서의 성폭력과의 전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nough is Enough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욕주 총경 Joseph D'Amico는 오늘 칼리지 및 대학교 캠퍼스 내 성폭행을 신고할 전용 핫라인: 1-844-845-7269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핫라인은 오늘 오전 11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석폭력 신고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매일 24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뉴욕주경찰은 학내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할 응대 프로토콜 및 교육 코스도 개발할 것입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이전에 SUNY에서 채택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성문화하고 뉴욕주의 모든 대학 공공 및 사립 대학에서 규정으로 적용될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법안은 SUNY 정책 및 보호장치를 뉴욕주 칼리지로 확대하고 뉴욕주의 120만명의 대학생들은 법집행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 및 액세스를 포함해 포괄적이고

균일한 절차 및 가이드라인으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되면, 이 정책은 뉴욕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nough is Enough" 웹사이트와 동영상은 지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학내 캠퍼스에서의 성폭행에 대한 사질을 알리는 행동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도움이 필요한 희생자들에게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편집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정책 지원을 알리는 주지사의 제안과 탭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campuscrime.ny.gov 링크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 링크는 주지사가 지난 해 뉴욕의 학내 캠퍼스에서의 성폭행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Enough is Enough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욕주 총경 Joseph D'Amico는 오늘 칼리지 및 대학교 캠퍼스 내 성폭행을 신고할 전용 핫라인: 1-844-845-7269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핫라인은 오늘 오전 11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석폭력 신고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매일 24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뉴욕주경찰은 학내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할 응대 프로토콜 및 교육 코스도 개발할 것입니다.

뉴욕주경찰은 주지사의 성폭행 정책을 단속하는 모든 SUNY 경찰 및 공공안전부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경찰은 매년 주 전역에서 3,000여건의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학내 성폭행 예방 제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특정 성행위에 관여하는 관계자 사이에 명확하고 정확하고 자발적인 동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동의의 주 전체 정의를 채택합니다.
- 주 전체 사면 정책,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을 보고하는 학생들이 마약과 알코올 사용과 같은 특정 캠퍼스 정책 위반에 대한 면책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생존자의 권리장전, 이는 캠퍼스는 특히 모든 학생들이 특정 자신의 성폭력 피해자를 알리기 위해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권리장전은 분명히 학생들이 주 경찰을 포함한 외부의 법 집행에 성폭행을 신고 할 수 있다는 알 권리를 제공합니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관리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교육의 요구합니다.

SUNY는 지난 해 주지사의 제안을 채택하여 이미 이 정책을 이행하였습니다. 캠퍼스는 새 정책에 대한 훈련을 완료한 대학총장 또는 피지명자, 대학교 경찰 및 공공안전 관리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된 피해자/생존자 권리장전을 이행했습니다. SUNY 실무 전담반은 캠퍼스 시스템을 통한 경찰 교육 활동과 학생, 교수진 및 직원들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15년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SA(System Administration)도 올봄부터 학생 의식개혁 캠페인을 시작으로 캠퍼스에 대한 지원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